

최윤범 “MBK·영풍 이사회 장악 막아라”... ‘핵심기술 판정’ 변수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 이후 ‘주주총회’·법정다툼 전황 MBK·영풍, 임시 주총 신청, 이사회 장악 표대결 입장 경영권 방어하는 최 회장에 “환경·변수 유리” 평가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공개매수에 주주총회 표 대결과 법정 다툼으로 전환된다. MBK·영풍 측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상황에서 지분율이 소폭 불리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방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어전을 준비하는 최 회장에 유리한 요소가 적지 않다. 분석도 나온다. MBK·영풍 측이 공개매수 이후에도 장내 매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 가격의 30% 이상 초과행진하는 고려아연 주가도 최 회장에 긍정적이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판정도 상대측 전략을 흔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최 회장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28일 고려아연은 지난 23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 9.8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백기사’ 역할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참여한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은 지분 1.41%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까지 주당 89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 결과 주식 233만1302주가 응모했고 고려아연은 이를 모두 매수했다.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고려아연은 앞서 계획한 대로 이번 매수인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추가로 확보한 우호 지분은 베인캐피탈이 매수한 1.41%다. 이로써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기존의 33.99%에서 35.4%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MBK·영풍 측은 지난 14일 종료된 별도의 공개매수로 38.47%까지 지분을 확보해 놓았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국민연금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최 회장이 추월할 여지가 있다. 이 같은 구도도 경영권 분쟁의 전장이 공개매수에서 ‘주주총회’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실제 이날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를 확인한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12인을 이사 후보로 내세웠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사회의장인 최윤범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을 비롯해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임시주주총회에서 14인의 이사 선임에 성공할 경우 15대 12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하지만 주총 소집 권한이 있는 현재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MBK 측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2개월이 소비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 당장 표 대결에 들어갈지 1~2개월 가량 준비 시간을 가질지 전략을 점검하고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방어전을 치르는 최 회장 입장에서 유리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고려아연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23일 8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던 고려아연 주가는 24일 113만800원, 25일 125만300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양 측의 공개매수로 유통 가능 주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서 나머지 주식 가치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에도 장내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하려던 MBK·영풍 측에 있어서는 큰 악재로 분석된다.

25일 종가인 125만3000원은 MBK·영풍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보다 50.69% 높은 수준이다. MBK·영풍이 공개매수를 시작하기 이전 최근 1년 동안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고려아연의 평균 주가인 49만543원에 비해서는 2.5배 이상 올랐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과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주가는 MBK·영풍이 장내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가가 한동안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리튬 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현재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국내 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시작된 이후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신청이 승인될 경우 해외로의 매각·기술 이전 시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관측된다.

이후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해외에 고려아연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향후에도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 향후 액시트(투자금 회수) 시점에 국내에 원매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외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부가 MBK의 계획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수준의 주가가 유지된다면 최 회장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나 법적 공방 등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좋다”며 “국민연금도 현재 경영진에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잘 준비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심상찮은 美 국채금리 어디까지 오르나...10일내 결정된다

〈10년물〉

수익률 올라 6개월만에 최대 매도세...트럼프 승리 전망 매도 부추겨 국채발행 계획·고용지표 발표 등 줄이어...해리스 당선편 하락 예상

6개월만 최악의 매도세를 보였던 미국 채권시장의 향방이 향후 10일 이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선을 포함해 시장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되면서다.

28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 10년물 국채수익률(국채금리)은 지난 25일(현지시간) 4.232%에 장을 마감했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지난달 중순께 3.6%대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지만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올라(채권 가격 하락) 지난 7월말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채권 시장에서 6개월 만에 최악의 매도세라고 짚었다. 국채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통상 국채금리 상승은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을 높이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등 전문가들은 10년물 국채수익률이 4.3%를 돌파하면 증시에는 본격적인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처럼 미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던 배경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빠른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대선이 임박한 상황 속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채권 매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의 관세와 감세 정책 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향후 10일 동안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BNY 웰스의 시니드 폴톤 그랜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금까지 모멘텀 장세를 보여왔는데 앞으로 2주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처음 주목받는 이벤트로는 29일 발표 예정인 9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이며 다음날인 30일에는 미 재무부의 분기별 국채발행 계획이 공개된다. 국채발행 계획은 채권시장에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릴 것인지를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채 판매를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30일은 또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된다.

목요일인 31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공개된다. 8월 PCE는 헤드라인 수치가 전년 대비 2.2%로 3년 반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도 2.7% 상승에 그친 바 있다.

11월 1일에는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10월 고용지표가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진정흐름을 이어나만 큰 연준은 이중 책무 중 물가보다 고용 안정에 더 집중하고 있어 10월 고용지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막강하다. 블룸버그조사 결과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1만명 늘어 9월의 25만4000명 증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10월 지표는 허리케인과 파업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샬로프 CIO는 “18만명 증가까지가 매직 넘버”라며 이를 회피할 경우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가 지지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1월 5일에는 역대급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 국채금리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DWS그룹의 조지 카크랍은 채권 총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10년물 국채금리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국채금리는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1월 7일엔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금융시장의 빅 이벤트가 마무리된다. 시장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80% 넘게 반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힘센 충남이!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 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